

國家發展에 寄與한 世界的 科學者

성기수(한국과학기술원 시스템공학 연구소 소장)

영우저널 150-1호 『내고장을 빛낸 인물』

시스템공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시스템공학연구소 成琦秀(57세) 소장은 경북 성주군 초전면 대장동 昌寧成氏 가문에서 태어났다. 고향에서 국민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면서 청소년 시절의 꿈을 키워온 그는 성주농업 5학년 때 6.25 동란이 발발하자 아버지가 비명횡사하는 불행을 당하여, 학업을 중단하고 4년간 방황하다가 대입 검정고시에 합격,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조선항공공학과에 입학하여 58년 졸업할 때까지 고학성의 설움을 꿰질긴 집념과 의지로 이겨낸 수재였다.

58년 공군소위로 임관되어 공사 교수부에서 항공공학 교관으로 같은 또래 앞에서 강의한 그는 '로켓트 탄도의 근사공식'이 미항공우주 과학지에 발표되어 이 논문으로 미국 하버드대학교 대학원 공학부에 장학생으로 61년 입학했다. 63년 '선형자 유체역학의 일반이론'으로 하버드 대학 3백년의 역사를 깨트리고 62년 석사학위, 63년 기계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함으로써 한국인의 우수성을 세계에 떨쳤다.

미국의 여러 분야에서 잔류할 것을 간곡히 부탁했으나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할 일이 너무 많다고 해외두뇌 국내영입에 앞장서서 귀국했다. 63년 서울대·대학원 강사로 후진육성에 이바지하면서 한국경제개발협회 조사역으로 활약한 그는 67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자계산실장에 발탁되었고, 80년까지 전산개발센터 부장, 전산개발센터 담당부장 겸 시스템연구 담당부소장을 겸임할 만큼 바쁜 몸이 되었다.

한국과학기술원 소프트웨어 개발센터 소장, 시스템공학센터 소장을 겸임, 89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시스템공학센터 소장을 역임하고 91년 3월 현재 동 시스템공학연구소 소장으로 재임중에 있다. 69년부터 현재까지 KIST경영정보시스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연구, 정부예산 업무 EDPS화를 위한 개발연구 등 3백여편의 학술논문과 연구결과 보고서 등을 발표하여 국

가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으며 88 서울 올림픽 전산·전신 시스템 개발운영으로 국위선양에 기여한 공적은 천추에 빛날 것이다.

그간의 공적은 국민포장(72년), 국민훈장 목련장(76년), 5.16민족상(79년), 국민훈장 모란장(89년) 등이 대변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컴퓨터피아” 컴퓨터피아 ’71, 컴퓨터피아 ’75 등이 있으며, 수많은 연구논문이 있다. 눈코 뜰새 없이 바쁜 중에도 재경 성주 향우회 자문위원으로 소임을 다하는 그의 취미는 바둑과 테니스이며 가정에는 내조의 공이 큰 부인 엄정림 여사와 슬하에 2남 1녀가 있다.